



첫 '병어축제' 여는 신안 어민들의 '희망 출어'

은빛 병어 '펼떡'... 만선의 꿈 '출렁'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七發島) 앞바다에 출렁거리고 있다. 눈 부신 은빛 병어가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이후 낫을 내렸던 어선들은 기지개를 켜고, 지도면 속도 위판장도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칠발도 해역에서 병어를 잡는 낫자망(刺網) 어선은 200여 척, 그물을 바닷물 속에 고정시켜 만조와 간조 때 물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이용, 그물에 걸리도록 하는 어법(漁法)이다.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경, 목포 광공선 부두를 떠난 64급 어업지도선 '진남 213호'는 20노트(1knot=1.852m) 속도로 바다를 갈랐다. 출항한 지 1시간40여 분, 36마일(약 58km)을 달려 만난 병어잡이 어선은 비금면 '술치'(수치) 선적의 8.5급 '기승호' 때마침 30년 경력의 유영철(65) 선장이 투망(投網)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물러 돌리는 재빠른 손놀림에 낫자망이 서서히 뱃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시간여의 양망(揚網) 중 어구(漁具) 두 틀(1틀=500m)을 훑었지만, 그물에 걸린 병어는 고작 4마리였다. 물때도 맞지 않고 북서풍만 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병어잡이는 물발이 점차 세지는 세 물(음력 12일·27일)부터 사리(밀물이 가장 높은 보름과 그믐)까지, 한 달에 두 번이 '대목'이다. 마파람(南風)이 불면 잘 잡하나, 서쪽에서 하늬바람이 몰아오면 고기가 들지 않는 것이다.

"기름값 아까워서 양망도 안 합니다."

산란기 맞아 연안 몰려 어선 '기지개'

31일~6월 2일 축제 술렁이는 바다

요란한 엔진 소리 속, 유 선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기승호'가 쓰는 경유는 한 달 90드림(1드림=12만원)이나 올해 어획고는 3천여만원. 기본급 100만원인 선원 5명의 인건비와 기름값, 출어비와 어구대를 따지면 아직은 적자다.

유 선장은 "선박 통행이 늘어나면서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크

다"며 "타지터 배까지 칠발도로와 경쟁이 심해졌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파로, 지도 송도에서 거래된 병어는 지난 20일 현재 17t(1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9t, 19억5천만원)에 비해 11.7% 줄었다.

화장(火匠) 정준당(40)씨가 때린 감오징어 볶음으로 점심을 때린 유 선장은 뱃머리를 흔들었다. 첫 그물에 한 박스(20마리=12만~16

만원)도 못 채웠지만, 덩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바다 속 일은 알 수 없잖아. 올해 처음 개최하는 '병치 축제'에 고기를 팔려면 부지런히 잡아야 하지 않겠소?" "제1회 신안 병어 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도읍 송도 위판장에서 열린다. 거친 파도와 대거리하는 선원들은 '용왕제'(龍王祭)를 지내며 뱃길의 무사안녕을 기원할 것이다. 오늘은 '어릴갑제', 내일은 만선(滿船)의 꿈. 하여, 병어잡이 배엔 아직 희망이 넘쳐 흐른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안 칠발도 앞바다에서 8.5급 낫자망 어선 '기승호' 선원들이 길이 1km에 달하는 병어잡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병어는 사리를 앞두고 조수(潮水)가 높아지는 물때, 마파람이 부는 날 잘 잡힌다. /신안 칠발도=유익량기자 jrwi@kwangju.co.kr

여수 '해상 펜션' 수사 착수

부적격업체 수익계약... 시공도 부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경호동 앞 바다에서 준공식을 가진 '해상 펜션' (9형형 4동)은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지급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 2

월 실시한 감사에서 ▲해상동 수단이 '바지선' 연결 로프가 설계 규격인 5cm가 아닌 3cm로 사용된 점 ▲펜션 고정에 쇠사슬 체인이 아닌 나이트 끈이 사용된 점 ▲바지선과 로프를 연결한 바위를 바닷속에 묻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여수시는 감사원의 제시공지 후 관련 부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고 등 징계를 했다. 한편 '해상 펜션'은 경호동·외동 어촌계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국비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사위실·냉장고·에어컨·상수도 시설을 갖춘 돌출 방갈로에서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목포 흥익상호저축銀 사주

1,596억 불법대출 구속

동생에 대출해준 이사도

서울중앙지법 금융조세조사2부는 28일 건설회사 등에 1천596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목포 흥익상호저축은행 실제 사주 송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용도 평가나 담보 확보 등 대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설사 등 11개 회사에 1천 596억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해 준 혐의다.

송씨의 범행으로 흥익상호저축은행은 1천35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최근 영업이 정지됐으며, 예금보험공사가 2천

억원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은행 정상화를 계획하는 등 '부실 대출'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송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은행 법안카드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 경비 ▲보석 구입비 등에 5억7천여만원을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은행 과도(47) 이사가 담보 확보 등 대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설사 등 11개 회사에 1천 596억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해 준 사실도 함께 적발해 구속했다.

한편 지급 정지된 예금액은 232명에 128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호받지 못한 금액은 1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니원침



거리에 음란전단 뿌린 40대

집유 2년·40시간 사회봉사

광주지법 "청소년 보호"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이 담긴 음란 광고물을 길거리에 뿌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28일 승용차에 음란광고물을 무차별적으로 부착한 정모(48)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명했다.

문 판사는 "음란광고물 살포 행위

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최근 심해지는 향락·퇴폐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특히 나이가 어리고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8시부터 1시간30여 분간 광주시 북구 중흥동 H모텔 인근에서 '은밀한 만남' '여대생 마사지' 등 선정적인 여성 사진과 문구·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광고전단 수백 부를 주차면 차량 유리창 또는 여관 입구 등에 무차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무면허 눈썹문신 30대

각막 손상시켜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28일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피시술자의 각막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여·35·광주지 서구 쌍촌동)씨에 대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돈을 받고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

를 입힌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K오피스텔에서 문모(25)씨에게 15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일명 아이라인)을 해줬으나, 수술이 잘못돼 각막에 손상을 입혀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 분양문의 062)367-9000

노상방노 쏘신리 한 여성에 주먹질

○갈가에서 불일(?)을 보던 자신에게 쏘신리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30대 회사원이 폭력 등 혐의로 입건.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27일 새벽 1시35분경 북구 용봉동 K 노래방 앞 길에서 급한 김에 '일'을 보던 중 지나가던 이모(여·28)씨가 자신을 쳐다보며 "노상방노를 하고 있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차기를 했다는 것.

○폭행을 당한 이씨는 평소 지니고 있던 호신용 최후방스를 썼는데, 김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잠시 주춤 사이 경찰에 신고.

○김씨는 경찰에서 "만취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씨가 나를 보고 나무라는데 화가 났었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Very Good Tour advertisement with logo and contact info: 대표번호 1588-7557, 광주점 062)515-7600

Travel packages for China/Japan: 6월 16일부터 수/토요일 출발, 장사/장가계 4일 ₩549,000

Travel packages for Vietnam/Thailand: 민족의 성지 백두산으로! 광주<->심양, 고구려문화 유적지탐방 4일 ₩539,000

Travel packages for Korea: 광주출발 [노팁]중국/일본/동남아, 상해/장가계/항주 5일 ₩779,000

Travel packages for Europe: 링강추천! 떠나요!! 여름바캉스상품모음, [노팁]폴란드/방콕/파타야/모알드래곤 5일 ₩649,000

※ 당사는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에 의한 변동요시, 광고사정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주권: 청문(여/한)·서울시 동구 서대문로 21-1 호성빌딩 11층·T: 02)699-7000 / FAX: 02)699-4555